



우바이예찬

2025년 통권 92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편집위원 남혜경,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편집간사 최연지, 이지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 02 **발행인 칼럼**
우바이예찬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 04 **전임 원장에게 듣는다**
나누고 싶은 작은 생각들
- 06 **祝詩**
청운동 우바이들의 純心
- 07 **108인 기획 인터뷰**
내 생애 큰 기쁨은 108인회 일원이 된 것
- 이은영 제5대 원장
- 10 **불교와 여성**
“고려·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
- 12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독송부터 쇼츠까지 다해내는 인플루언서
- 보리선원의 무여스님
- 15 **현장 스케치**
제7회 108인의 날을 마치며
청운동 광장에 온갖 상서로움이 몰려오네
- 18 **우바이 문화살롱**
차(茶)로 나를 보다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
- 20 **특별활동보고**
다문화행복가족센터, 해인사 템플스테이
- 23 **사무국 소식**
- 26 **산하기관 센터 소식**
- 30 **회원동정**
- 31 **재정 등참 현황**



표지 이야기

이른 아침의 남이섬,
물살을 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

사진 : 조현숙

(10차 108인, 전 불교사진협회 회장)

우바이예찬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으며, 2025년 봄을 맞아 우바이예찬을 엽니다.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지혜와 변혁의 기운으로 출발한 지 어느새 석 달이 지나, 연록의 새순을 틔우며 천지 생명이 깨어나 봄을 숨 쉽니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매화 향기 짙은데, 연분홍 벚꽃 망울 흐드러진 가로수길 따라 청운동 여성광장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사회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봄의 향기에 담아

2025년 첫 우바이예찬 봄호는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108인의 지난 석 달, 봄을 맞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도, 묵묵히 지금 이 자리, 각각의 모습을 지키며 기쁨과 보람을 키우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봄의 시정(詩情)을 느끼고, 나날이 깊어지는 수행으로 과거를 이어 현재의 생명력을 키우며, 개인을 넘어 미래 사회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며 열정 가득히 봉사하는 우리 우바이들의 치열한 삶의 소식들을 전하려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교육·수행·봉사를 비전으로 하는 불교문화, 여성문화를 108여성광장에서 만나고, 인공지능 디지털의 시대를 맞아 새 문화를 창도하는 시니어의 배움과 가르침을 지혜실과 자비실에 가득 꽃피우고 있습니다. 여성광장의 루프탑에서 맞는 탁

트인 하늘과 인왕산의 푸르름을 카페 108의 짙은 차향으로 품어 천이백 여성 108인의 역량으로 구축한 성숙한 문화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붓다의 등불을 밝혀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고 연꽃의 향기가 퍼지듯이,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이 나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 세우며, 양성평등의 행복한 삶의 문화를 살아가는 모범이 되고자 꿈꿉니다.

지혜로운 108인의 생각과 실천을 담아내는 우바이예찬

해마다 그러하듯, 올해도 불교여성개발원 지혜로운 여성들은 스스로 배우고 서로 깨우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시니어 지혜 + AI 상상 : 그림책으로 만나다>, <고요 속의 향기-행다 수행과 선 치유>,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다른 세상 이야기, 함께 그리다> 이름으로, 행정안전부, 대한불교진흥원, 서울시 등의 외부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 여러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배우고, 각자의 전문성을 기초로 서로 재능 기부하며, 불교여성개발원의 시니어108인과 영108인, 그리고 불교여성개발원 일반회원 및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과 실천들을 우바이예찬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소식지를 위해 봉사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2024년까지 우바이예찬의 발행처는 불교여성개발원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법적 절차상 2025년 3월부터 발행처를 법인체인 (사)지혜로운여성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우바이예찬은 여전히 불교여성개발원의 소식지로서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다져갈 것입니다.

그동안 2011년 1호로 출발하여 2024년 91호에 이르기까지, 우바이예찬 편집을 위해 봉사해 주신 수많은 편집위원과 특히 지난 6년 애써 주신 형난옥 편집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2026년 임기 동안 우바이예찬 편집을 위해 새로이 봉사해 주실 편집위원과 편집간사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

나누고 싶은 작은 생각들

삼보에 귀의하오며, 2025년 새로 출범한 제13대 원장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하시는 사업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계간지 『우바이예찬』 봄호가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시점에 저에게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좋은 뉴스로 힘찬 출발을 하시는 새 집행부의 행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도 격려의 마음을 담아 지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운동 낡은 건물에 혼을 불어넣어 불성 충만한 공간으로

한국 재가 여성 불자를 대표하는 최고의 조직인 불교여성개발원이 쉽 없이 달려온 지난 역사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 사회에 회향하고자 보현행을 닦아온 긴 시간의 집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 했던 시간 또한 새로운 도전이었고 보람을 안겨준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첫 소임은 주택가 낡은 건물에 개발원의 혼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불교여성광장의 성취가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기에 십시일반 연꽃 피워 진리의 등불 밝혀주셨던 1020여 분의 거룩한 마음을 새겨 ‘모연의 벽’을 조성하는 불사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이었죠. 또한 수송동 시대에 이어 청운동 사옥에서도 개발원의 3대 모토인 수행과 교육, 그리고 봉사가 끊임없이 행해지는 불성 충만한 공간으로 가꾸어가야 하는 일도 중요한 불사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불교, 국제불교, 세련된 불교를 지향

소임을 맡았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적잖은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었고, 차기 집행부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과업도 있으며, 정성껏 기획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했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개성과 원력을 지닌 리더들께서 지혜로운 답을 찾아 면면히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출범 직후 12대 집행부가 맞닥뜨린 개발원의 주요 현안 중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고심했던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종단으로부터 홀로 서게 된 이후의 바람직한 새출발에 대한 고민을 서두로, 젊은 불교, 국제 불교, 시대를 앞서가는 세련된 불교를 지향하는 외에도 개발원을 위한 독자적 수익모델의 개발, 개발원 조직 체계의 보완 그리고 수행, 교육, 봉사를 신조로 하는 개발원의 대사회적 위상 점검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목직한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당시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웠던 상황 이후에 개발원 가족을 위한 마음 치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화합의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시킬 때 불교여성개발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공고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쉽게도 개발원 차원의 치유의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지만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조계종과 관음종 종정스님을 비롯해 종단을 초



월하여 비구, 비구니 어른 스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문광스님께 묻는 빅 퀘스천(Big Question)> 특장을 통해 개발원 가족들은 끊임없이 공부하며 시절인연을 숙성시켜가는 수행 속에서만 영적인 화합과 상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지혜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트렌디한 불교 문화창조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노력

‘젊은 불교’ 즉 개발원에 젊은 리더들의 영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중견으로 성장한 영 108 MZ 세대를 11차 108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자녀와 영 108가족 템플스테이를 여러 차례 기획, 실행함으로써 ‘어린이 108’의 탄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국제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바이예찬』 소식지를 활용해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샤카디타 세계대회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원

은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 미국, 프랑스, 홍콩, 중국 등 여러 국가 회원으로 구성된 여성불자 108인 간에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놓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아이디어의 하나로 개발원 사옥이 불성 충만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1세기에도 살아있는 오래된 미래이기에 트렌디한 불교문화 창조는 문화적 환희심을 북돋우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수익모델 개발과 젊은 동력의 보완은 지속적인 과제

위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임기 내내 고민했던 큰 화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원 수익모델의 개발 및 젊은 동력으로의 대체가 시급한 조직 체계의 보완, 그리고 개발원의 대사회적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업들은 개발원의 존속에 관한 것이어서 두고두고 숙고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과제이겠지만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 회원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지난 2년간 수행 위주의 교육과 정진, 사회적 가치의 실현, 그리고 문화 활동, 여성신행 연구, 장학생 선발, 국가와 불교계 지원공모사업 등을 펼치고 뜻깊게 회향하여 여성가족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신심 깊은 회원님들, 이사님들, 고문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지면을 기꺼이 할애해 지난 작은 경험담을 나눌 수 있음에 거듭 감사드리며 13대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의 향이 깃들기를 합장드립니다. 🌸

청운동 우바이들의 純心

다 날아가버렸다

노트북의 묵은 켜켜의 詩心도
내 인생의 오욕칠정도
가스렌지의 묵은 때가 단번에 사라지듯
한 발 내딛으면 백척간두
깊은 임종의 두려움도

그러나 다시 피어오르다

몽을몽을 춘몽 같은
진흙 속에 핀 연꽃이 되리라

1000일의 금강경 기도 마친 선림사
일억광년의 영험한 햇빛, 달빛, 별빛이
칼을 든 공주에서 방패를 든 왕비로다

맨발에 엄지발가락으로
살얼음판을 건너 청운동 골짜기를 건넜노라

우린
부처님의 딸
진흙속에 발을 담고
뚜벅뚜벅
수행·봉사·교육의
법륜을 굴린다

거리 속속들이의 아픔
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모두의 버석한 가슴아리에
뜨거운 국탕 한 그릇
따순
말씀 한 모금
純銀처럼 빛나는
上求菩提 下化衆生 화두의 실천궁행

주저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외면하지 못하는
들어다보는 마음도 함께 모였네

심청이 인당수 치마폭 가리고 풍덩 던져 진리의 바다에 이르듯이

논개가 양손 옥가락지에
忠情을 붙잡듯이
내 피붙이만이 아닌 우주와 산하와 민족이 염주알처럼 이어지듯이 기도하리

貧者의 一燈
꺼지지 않는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들의 한 등, 한 등의 純心
세상 불국토의 초석이로다

내 생애 큰 기쁨은 108인회 일원이 된 것

— 불교여성개발원 제5대 원장 이은영



1차 108인 이은영 선생님은 독일 튀빙겐 법학대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교여성개발원 5대 원장,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다. 가끔 선생님을 뵈면 가만히 미소만 지을 뿐 말수가 적으셔서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신 줄 몰랐다. 최근에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신다.

2월 11일 화요일, 이지운 간사와 함께 인사동 한식집 옥정에서 선생님을 뵈었는데, 겨울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따스한 아름다운 하루였다. 곧 봄이 오려나 보다.

아버지 무릎에서 공자, 맹자를 읽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의 회원 여러분들께 『우바이예찬』의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1차 108인이면서 제5대 원장을 지냈던 이은영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소중한 불자 친구 모임’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불교여성개발원은 제게 삶의 용기를 주었고, 사회생활에서 좋은 기회가 펼쳐

지게 해준 근원이 되었어요. 저를 108인으로 뽑아 주신 이인자 고문님, 이사장으로 추천해 주신 김인숙 고문님께 감사하는 마음 늘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1952년 서울 출생으로, 3남 3녀 중 둘째 딸이에요. 아버지는 평안북도 출신의 사업가로서 서울에서 경제잡지를 발간하셨어요. 유학을 숭상한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오빠들에게 『공자』, 『맹자』, 『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는데, 그 덕분에 저도 한문에 친숙해졌어요.

엄마의 본격적 교육 덕분에 저는 만 4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 어른이 되어서도 외톨이로서 고독을 마주하고 지냈어요. 경기여고, 서울 법대, 대학원, 독일 튀빙겐대학 법학박사를 마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에서 40년 봉직 후, 현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있어요.

학위를 마치고 결혼해서 1남1녀를 두고 있어요. 손자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라서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사찰 불사에 지원을 많이 하셨고, 불교 행사에 자녀들을 꼭 참석시키곤 했어요.

대학 때 만난 불교는 마음의 기둥이며 구원자

대학 때 만난 불교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절망에서 끌어내 주는 구원자 역할을 해주었어요. 홍일점으로 힘든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남산 기슭 ‘대원정사’ 현수막의 “진리를 발견하여 자아를 찾자!”라는 글귀에 사로잡혀서, 대원정사 야간불교대학을 제1기로 수료했어요. 예전에는 절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불교에 입문한 훌륭한 스님이 많아서, 법학과 불법이가깝게 느껴졌어요. 대학 시절 ‘룸비니’라는 불교학생회에 참여하였고, 외대 재직 중 대학생 불교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학생들과 법회를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서초동 수안사는 저명한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문을 들려주어서 좋아요. 그리고 봄가을로 찾는 선운사 옆 ‘창당암’은 조상을 모신 절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지탱해주는 기둥은 불교예요. 불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은 불교여성개발원이구요. 아름다운 장소에 우리끼리 모여 자유롭게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성 불자 108인으로 선정된 일은 불자로서 가장 기뻐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불교 신앙이 뭐 꼭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은 아니었지만, 여성 불자 108인의 자격을 받은 것은 흥분해서 주위에 떠들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경력이었어요. 지내보니까 사찰 신도회보다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즐겁게 주장을 펼쳐 볼 수도 있고요. 당시는 이십 년 이상 교수생활이 준 긴장감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108인 선정 이후 신기하게도 좋은 일만 생기더라구요. 일본 규슈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일했고, 이어서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현실 정치에서 펼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5대 원장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을 조직화하고 위상 높여

어느날 이인자, 김인숙 두 분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행활동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 불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사양했지만, 괜찮다고 하며 억지로 자리를 맡기셨어요. 때마침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그곳의 훈탁한 분위기에 젖은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던 때라서, 마음공부 삼아 수락했어요.

우선 비용을 들여 5층 사무실(수송동 조계사 옆) 인테리어를 정비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공간도 준비했어요. 밝고 깨끗한 공간이 생기니 회원들이 자주 들르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회원들이 개발원에 들러 할 임무를 주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개발원의 조직체계도를 만들고 여러 활동 분야를 세분하여, 한 회원이 적어도 한 분과의 위원을 맡도록 했어요. 즉, 전 회



원의 조직화 작업을 한 것이죠. 그 조직화 비법은 정치하면서 배운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개발원의 정관을 정비하고 회계 시스템을 손질했어요. 불교단체에 무슨 정관이 필요냐고들 했지만, 법학지식을 동원해서 모범적인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을 만드니까, 개발원의 일은 거기에 따라 행하게 되어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회원들의 회비와 각 분과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의 사용을 체계화해서, 자금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도 줄이고 사업별 기부금도 늘렸어요.

또 제4대 김인숙 원장님 때 김 원장님을 도와 법인설립을 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법인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종교단체는 문화관광부 소속이어야 하는데, 그곳의 허가 받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인이라서 그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종교색이 옅은 ‘지혜로운여성’이란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극빈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군부대 방문, 교도소 방문 등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이 체계적이고 활동적인 단체로 성장하고 나니까. 조계종에서 우리를 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조계종 행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연등 행렬과 초파일 거리 점포도 좋은 자리로 배정해 주었어요.

조계종이 매년 수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재정적으로 전보다 운 좋게 되었어요. 회원들의 기부금과 외부에서의 지원금이 모이기 시작하자,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불교여성개발원의 위상이 높아지자 불교 방송, 텔레비전의 출연 요청과 신문 기고 요청 등이 늘어났어요. 불교여성개발원이 외부에 알려지고, 유명한 회원 수가 많아졌어요.

그뿐 아니라 불교여성개발원이 양성평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구니회와 가까워졌어요. 개발원은 조계종 종단 내 비구니스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선언문 발표 등 여러 경로로 건의했습니다.

옛날 일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리 예전이 좋다 해도, 지금만 하겠어요. 현재 불교여성개발원이 번듯한 독립 건물을 갖고, 수많은 회원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전 원장으로서 한량없이 기뻐요.

텃밭 농사하며 비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울 인근에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시골집과 텃밭이 있어요. 주말이면 내려가 이것저것 키워 보는 데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도 벌써 봄기운이 느껴져요. 좀 있으면 감자니 상추니 심어야 할 게 많아요. 오이도 꼬부라지라고 가지도 찌그러지고 못생겼지만 직접 키운 야채는 정말 맛이 좋아요. 노지 채소랑 온실 채소가 맛이 확연히 달라요. 친구들 만나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요. 옥수수가 익을만하면 동네 까치가 모여들어요. 어떻게 아는지 맛있게 익은 것만 골라서 따먹어 버리니까 한 50%만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니까 그렇게 밍지 않아요. 의욕이 넘치는 사람보다 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불교여성개발원 전임 원장님과 함께

불교여성연구소 학술토론회

“고려·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1시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2024년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4주년’ 기념 오전 행사로 불교여성연구소가 주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불교여성연구소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시절인 2011년 1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 교수를 소장으로 임명하며, 송현주, 전영숙, 김진 등의 여성 불교학자들이 뒤를 이어 역임하며 불교여성개발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세대가 함께 하는 발원문집 『그대 향한 길』 발간

김진 소장은 이기향 원장 재임 기간에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후 연구소 설립 취지를 살리고자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임기 첫해인 2022년도에는 경전에 근거하여 불자 가정을 위한 일상 의례를 연구한 후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라는 자료집을 펴냈고, 학술토론회로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발원문 교실을 열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마침내 그 발원문을 모아서 『그대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 의례 발원문집’이라는 다른 부제로도 소개할 수 있는데, 진솔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기향 원장님의 손길을 거친 아름다운 그림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다.

고려·조선 불자 여성의 신행생활로 살펴보는 불교활동

2024년에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고려·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를 기획하였다. 고려·조선 시대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의 신행에 대해 살펴보고 귀감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처음에는 고려·조선 여성 불자들의 구체적인 신앙과 신행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한국 불교사에서 특히 여성 불자들에 대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연구자의 수도 적고, 연구 결과도 미미한 점에 주목하고, 2024년 불교여성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고려·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 양상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료의 절대적 부족으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그들의 구체적인 신행 생활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의 불교 활동을 살펴보기로 했던 것이다.

“고려·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의 제1발표는 재미향 박사의 「신라·고려 시대 여성 불자들의 불사(佛事)」로, 신라 첫 비구니 사씨(史氏)의 출신국에 대한 추정과 덕주공주와 마애불 조성, 충선왕의 숙비와 수월관음도 제작을 통해 신라와 고려 시대 여성 불자들의 불교 활동을 단편적이거나 살펴

았다.

이에 대해 여성 불자 108인회 남동현 회장의 토론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법흥왕 대의 묘법(보도부인) 박씨나 이원 등의 사찰 창건과 교화, 영흥사 창건과의 연결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또 덕주공주와 관련하여, 제천시 월악산 덕주사와의 관련성도 보충하면 좋겠다고 평을 하였다.

제2발표는 순천향대 탁효정 교수의 「조선 시대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행」으로, 이 주제에 오래 천착해 온 발제자의 풍부한 자료와 탁견이 돋보이는 발표였다. 탁 교수는 비교적 풍부한 자료가 확보된 왕실 여성들의 출가와 신행 생활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 여성들의 신행 생활을 조망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8차 108인으로 날란다독서반 반장을 맡은 조명숙 선생님이 해 주셨는데, 훈민정음 언해본과 소현왕후의 관계, 남양주 수종사의 유물 등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 핵심을 잘 살린 질문을 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전영숙 전 연구소장은 〈비구니 스님 디지털 인물사전〉 작업에 이어, 최근에 간행된 『역사 속 한국 비구니』의 편저자로, 이 문제에 관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힘을 써 왔기에 더욱 사회자의 역할이 돋보였다.

불교와 페미니즘의 통합 관점에서 장기 프로젝트 필요

행사 당일 김진 소장은 학술토론회 자료집의 인사말을 통해, 먼저 불교여성개발원 이기향 원장께서 지난 2년간 불교여성개발원 건물 이전과 리모델링 등등,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여성연구소가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불교와 페미니즘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 교리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고, 페미니즘 이론의 새로운 영역으로 불교 페미니즘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론을 창출한다’는 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창립하던 해의 학술 토론회 주제는 「21세기 페미니즘 시대의 여성 신행의 재조명」이었다. 김진 소장은 ‘불교여성연구소라는 이름과 설립 취지에 걸맞은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첫 걸음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여성 불자들의 신행 양상을 준비하였다’며 학술토론회 주제를 둘러싼 의견을 밝혔다. 역대 소장들과 연구위원들의 노력으로 불교여성연구소는 앞으로도 제 역할을 잘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독송부터 쇼츠까지 다해내는 인플루언서

— 보리선원의 무여스님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 찬바람이 뽀뽀 부는 2월, 유튜브 '무여스님TV'의 운영자이자 2022년 11월에는 고양시 도시에 포교당, '보리선원'을 개원한 불교계 대표 인플루언서, 무여스님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신도시 상가 주택 1층에 위치한 '보리선원'은 아담하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공간 역시 품고 있는 주인을 닮는 걸까. 많은 일을 조용히 내실있게 하시는 스님의 일상을 담아 왔다.

전국에 산재한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하고 더불어 불교와 불교문화를 좀 더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 싶어 시작한 '무여스님TV'는 2019년에 시작해 이제 6년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스님의 유튜브에는 사찰 소개와 인터뷰 영상뿐 아니라 '금강경 독송'과 보리선원의 법회 라이브 방송,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물, 그리고 쉬어가는 코너 느낌의 아름다운 영상 모음인 쇼츠(Shorts)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망라되어 있다. 촬영을 제외한 영상 편집과 잡다한 일을 모두 하신다니 공심(公心)과 부지런함이 엮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꾸준히 포스팅한 덕분에 구독자 수는 5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조회 수는 평균



출처 : 조계종 교육원

30만 명을 넘긴다. 게다가 2023년에는 그간의 사찰여행을 책으로 꼭꼭 눌러 담아 『우리 함께 떠나요』라는 사찰 사진 화보가 가득한 아름다운 책을 발간하였다.

펼쳐 보기만 해도 산사에 있는 듯 내 시선으로 보는 듯한 사진들이 정답기만 하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여러 불교 대학의 강사로, 이런저런 방송 출연으로, 꾸준한 SNS 관리로, 또 보리선원의 주지로, 우리 눈에는 숨차 보이는 일들을 정작 본인은 평안하고 조용한 얼굴로 하고 있다. 그저 당면한 현재를 충만히 사는 것이 비결일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난다. 스님, '좋아요'와 '구독' 늘렸습니다!



법문 듣고 경전 읽던 맑고 고운 아이가 비구니가 되어

이런 공심을 꾸준히 내는 무여스님은 어떤 분일까?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 독자에게 친근한 『모정불심』(저자/박원자_6차 108인)이라는 책의 한 꼭지에도 등장한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불심 깊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얻은 큰딸이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법문 듣고 경전 읽는 것이 좋았던 맑고 고운 아이였다. 중학교 때는 뜻도 모르면서 금강경을 외고 지니고 다녔고 고교 시절에는 길상사 선원을 다니며 스님들로부터 참선을 배우며 '언젠가 나도 저런 대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 바로 출가했다.

3년 행자생활을 마치고 22살에 운문사 승가대학에 입학하고 2006년에 비구니계를 받았다. 직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참선 수행에 대한 열망으로 바로 선방을 향하는데 이상하게도 몹시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았다. 길을 잃은 느낌이였다. 2년간 염불도 해보고 물어가며 견뎌보다가 계속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남해 학림사로 충무 소임을 맡아 떠났다.

그곳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어린이 법회도 맡아하고 법문도 하다보니 부처님의 가르침(교학)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껴 결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게 된다. 그 후 계속 이어진 공부가 불교학 박사 과정 수료까지 이어졌고 지금은 여러 사찰의 불교 대학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또한 잠실 불광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법사로 6년을 지내면서, 1년에 네 차례씩 수련회를 가고 멀리 캄보디아까지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많았다.

“어린 법우들에게 불교를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사찰 예절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와 유튜브였다. 하지만 유튜브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누구를 보면서 따라갈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혼자 편집하기를 공부하면서 스님 방식으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어딜 가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 혼자 보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찍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참조해서 성지순례도 가시고 또 아프시거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찰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도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불법 펴기 위해 신도시에 보리선원 개원

하지만 온라인 포교만으로는 부족했고 직접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줄 공간이 필요했다. 보리선원을 개원하기까지 꼬박 1년을 준비했다. 개인적으

로 정감이 가는 지역을 골랐고 신도시에 지역 포교당 하나 없는, 교회가 즐비한 곳에 보리선원을 개원했다. 이제 스님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찰 소개뿐 아니라 보리선원과 관련된 행사와 소식이 많이 올라간다. 또한 ‘보리선원’ 밴드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법회와 불교 공부반, 만다라 명상반, 찬불가 수업 등 여러 교육과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월 별로 올리고 있어 무어스님 식의 문화 포교를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리선원 밴드 불자가 천육백여 명에 이른다. 작지만 또한 큰 수이다. 각지에서 불심 종자를 품은 마음이 더욱 풍성히 꽃피우길 기다려본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깨달음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깨달음이 저 멀리 다음 생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는 것이기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바르게 실천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자신을 믿고 ‘자등명법등명’ 하길

끝으로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여쭙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환경문제도 심각하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실유불성(모든 중생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인데 다만 탐진치에 찌들고 오랜 세월 악업을 쌓아서 밝게 보지 못할 뿐이지 내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봄이 오듯이 꽃이 피어나듯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거거든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좀 더 지혜롭게 잘 견뎌내면서 지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모두 불성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 좀 더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저는 힘든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자등명 법등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회 108인의 날을 마치며

청운동 광장에 온갖 상서로움이 몰려오네

어제 2월 20일부터 108인회 몇 개의 카톡에 감동의 수희공덕 찬탄이 쏟아지고 있다. 두 분의 통 큰 보시 덕분이다. 한 분은 김인숙 전 원장님이다. 평소 아끼던 애장품을 기증해 주셔서 3층 자비실이 갤러리가 되었다. 2025년 정기 총회에 즈음하여, 여성광장 자립 기금 마련 행사로 김인숙 전 원장님의 애장품 전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원 행사나 바자가 열릴 때마다 아낌없이 주얼리 작품을 내주시고 행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김 원장님의 큰 보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빈자일등이 마중물 되어 이어지는 수희공덕

또 하나의 보시는 정대련 원장의 여성광장 기금 후원이다. 정년퇴직금 1억 원을 쾌척하며 전임 원장님들의 보시와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닮고 싶었다고 전했다. “빈자일등(貧者一燈)! 크고 작음 없이 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발원이 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 여성 불자들의 아름다운 광장에 선한 꽃을 피우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는 정 원장의 카톡 문자이다. 변호사 남편을 둔 대학교수가 빈자일등을? 이렇게 생각하는 회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취임식 때는 젊은 시절부터 입던 한복을 입고 큰절하고, 바자회 끝날 즈음이면 교복같이 담백한 차림으로 나타나 물건을 듬뿍 사 간다. 개발원 일로 만날 때도 갖가지 빵을 품에 안고 오는... 보시와 검약, 희생과 헌신 자체이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는 원장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감동인 것은 ... 소리 없이 행한 무주상 보시가 커다란 마중물이 되어 광장 건립 부채를 모두 갚아보자는 회원들의 잔잔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듯하다. 빈자의 일등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 대신 걷기나 지하철 타기, 마트에서 사지 않아도 될 물건 한두 개씩 털어내기, 충동구매 하지 않기, 외식 한번 건너뛰기, 일찍 나서서 택시보다 대중교통 이용 등 생



각해보니 꽤 많이 있다. 월 3만 원씩이면 3년, 9만 원이면 1년, 연꽃 한 송이는 피울 수 있겠다.

이 시대의 지혜와 변화를 화두로 기원 담아

2025년 1월 8일은 제7회 108인의 날이었다. 한 달 남짓인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다. 아마도 108인회 회장이라는 소임에서 벗어난 홀가분함 때문일까. 그날로 돌아가 보자. 여성 불자 108인의 날은 매년 1월 8일에 열린다. 올해가 일곱 번째이며 우리 불교여성광장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공식 행사는 2층 지혜실에서 진행되었고, 추가 인원은 3층 자비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했다. 두 개 층에서 나뉘어 진행함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내공과 재치가 돋보이는 박원자 작가(5차 108인)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경을 봉행하였고, 정대련 원장이 신년사를 전했다. 신임 원장 취임 후,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였다. 회원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에 대한 발원과 ‘이 시대가 찾는 지혜는 무엇이고 변화를 향한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화두를 기원에 담았다. 청운동 맑은 구름 아래, 아름다운 불교여성광장에서 우리 여성 불자 108인이 참 지혜의 빛을 밝히고, 서로 마주 보고 손을 맞잡아 연대하고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나와 너, 우리, 온 누리가 하나 되어, 기쁨과 보람 나누는 올 한 해 되기를 비는 기원이었다.

1부 행사는 신년맞이 초청 특강으로, 김성규 법사님을 모셔 “AI 시대의 불교, 여성 불자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청했다. 법사님은 대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누구나 불교경전을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말 불교경전 번역을 발원하였다. 40여 년간 경전 번역과 강의에 매진하면서 2,500여 쪽에 달하는 『우리말 불교 경전 총론』을 펴냈다. 법회를 찾는 누구나 경전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얇은 종이로 책 한 권에 주요 경전 10권을 담았다고 한다. 우리 회원들의 특성에 맞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동시에 넓고 깊은 통찰을 담은 구수한 선지식의 법문에 모두가 만족하였다.

점심 공양은 1층 마하실에서 4층 카페108까지 개발원 모든 공간에 나누어 앉아 차수별로 하였다. 메뉴는 맛있는 김밥과 시금치 된장국이었다. 수익사업단 최혜경 이사께서 김밥을, 멀리 대구에서 온 오현숙(2차)님은 구운 계란 200개를, 이인자 초대 원장님은 굴 3박스를, 이순이(3차)님은 떡 2말을 보시하셨다. 차수별 봉사자와 사무국 분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모두가 즐겁게 공양을 마칠 수 있었다. 준비해 주신 분들과 맛있게 공양을 즐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 되길 발원하다

2부에선 제7회 여성 108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108인의 날 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 전임 개발원 부원장과 108인회 차수장에 대한 감사장 및 신임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지고, 위즈덤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불가 공연이 있었다.

이인자, 김인숙, 김외숙, 김선옥 등 전임 불교여성개발원 원장들과 이영미, 양경윤 등 전임 여성



108인회 회장들, 그리고 멀리 강원지원의 김옥주 지원장과 회원들, 대구경북의 회원들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가 컸다.

먼저, 남동현 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 여성광장이 큰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좁고 불편하지만, 회원들의 간절한 발원으로 마련한 의미 깊은 독립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모든 회원이 108인회의 주인이 되며, 회원의 노력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광장이 수행과 교육, 봉사와 친교가 어우러진 따뜻한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 108인회 회원 모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청운동 여성광장이 아름다운 참 도량이 되어, 온갖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물려들리라는 발원을 담은 이임사였다.

더불어 그동안 애써주신 108인회 총무와 재무, 각 차수장들에 대한 감사장과을 수여하고, 김인숙 고문님의 주얼리 기념품과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1·2』(남동현 저)를 감사의 선물로 전했다.



8대 108인회 남동현 회장

이어서 108인회 제9대 이영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2025년 개인적으로 ‘이영주 컬렉션 3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나 “혼자만 공부하는 것보다 남을 살피면서 함께하는 공부가 진정한 수행”이라는 종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 불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단체가 되도록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며 청운동 시대를 연 선배와 동료, 후배들과 함께 자부심과 환희를 느낀 만큼, 신임 회장으로서 두 가지 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일과 수행을 통하여 도반애를 두텁게 하고, 둘째,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발원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였다. 앞으로 이영주 회장의 참신하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젊음, 그리고 임명장을 받은 회장단과 차수장님들의 활력 넘치는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마무리 순서로, 불교여성개발원 신임 부원장 10분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강원지부 및 대경지부 회원들의 개별 인사, 축하 케이크 커팅, 위즈덤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 공양과 다 함께 어우러짐, 연예인 김미화 씨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김인숙 고문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얼리가 증정되며, 우리 광장을 감사와 훈훈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선배님들, 동료와 및 후배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7회 108인의 날에 대한 소회를 마치며, 소리 없이 번지는 진한 감동의 물결을 이어가고 싶다. 빈자의 등불! 개발원에 연꽃 한 송이 피워야겠다. 하나, 둘, 셋, 수메다의 청련 다섯 송이, 십바라밀도 좋으리라. 우리 모두의 발원으로 세운 청운동 여성광장에 온갖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물려오도록. 🌸



9대 108인회 이영주 회장

차(茶)로 나를 보다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

1978년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여연스님을 뵈면서 차는 그야말로 내 인생이 되었다. 특히 1992년도에 큰 아이의 초등학교 명예교사로서 차를 가르치기 위해 다시 차를 배우려고 한국다도대학원 제3기로 입학하였고, 졸업 후 그 협회의 소식지인 〈차인〉 편집장을 맡은 만 26년간 온통 차에 빠져 살았다.

현대 우리 차의 발동기부터 역사상 가장 번성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30여 년을 차에 몸을 담고, 차 전문가들을 위한 바르고 의미있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차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차와 차그릇, 다식, 찻자리꽃, 차그림, 차음악, 차실, 역사, 철학, 종교, 산업까지 차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발로 뛰어야 했다. 그 사이에 골목마다 티카페가 줄을 잇고, 큰 행사 특히 불교 행사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부인들이 정성스럽게 차를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내 머릿속을 맴도는 키워드는 언제나 “왜 차를 마시는가” 혹은 “왜 차를 마셔야 하는가”였다.



은은한 향이 나는 매화차

차는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 예술

“왜 차를 마셔야 하는가”라는 화두의 첫 여정은 옛 차인들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들이 느끼고 본 것을 알면 그 답이 있을 것 같았다.

먼저, 차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신농이 지었다는 『식경』에서는 “차를 마시면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뜻이 즐거워진다(茶茗久服 人有力悅志).”고 하였다. 차의 성서라 불리는 당나라 육우의 『다경』에서는 “차를 마시는 본뜻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그윽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생의 참다운 보람을 얻는 것이다.”라 하였다. 또 일본 다도의 완성자인 센 리큐는 『남방록』 각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차는 먼저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수양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화려한 건물에서 진수성찬을 맛보는 것이 차의 즐거움이라고 여김은 속세의 일이다.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족하고,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다도의 본심이라 하겠다. 그저 물을 길어다가 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서 부처님 전에 바치고, 이웃에게도 돌리고, 나도 한 잔 마신다.”



차밭골에서 차를 올리는(獻茶) 모습

추하는 것으로 찻잔에 자신을 비춰본다고 하였고, 그 향기롭고 고요함을 닮고 싶다고 하였으며, 밤을 새워 다우들과 차를 즐기는 맛을 말하였다.

또한 차로써 몸을 가다듬는 예의 본질임을 강조하였으며, 입을 모아 “차를 마시는 행위는 세상의 복을 부르는 것으로, 머리와 입이 아닌 가슴과 손으로 완성하는 생활 예술이자, 생활 속 수행입니다.”라 하였다.

차는 지관 즉 알아차림의 경지를 쉽 없이 닦는 것

특히 차살림학을 주창한 정동주 선생은 차의 정신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차는 두 가지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맨 먼저 약(藥)이 되는 성질이며 두 번째는 위파사나(Vipasyana) 즉 지관(止觀)이다. 마음을 단련하여 온갖 바깥일이나 어지러운 생각에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Samatha)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바른 지혜를 끌어내어 대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을 지관이라 한다. 선종의 지도자인 백장회해 선사께서 〈백장청규〉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차 마시는 법’을 만들어 넣어 두신 까닭은 다름 아닌 ‘지관’의 경지를 밥 먹듯이, 쉽 없이 닦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스님들이 공양(식사) 전에 식사에 대한 감사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외우는 다섯 가지 수행 계송인 오관계(五觀偈)에 차를 대입해 보니 “아하, 왜 차를 마셔야 하는가”가 고스란히 전해 왔다. 모든 음식을 공덕으로 감사히 받고, 탐욕을 버리며, 수행을 위한 양식으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관계

이 차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허물을 모두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道業)을 이루고자 이 차를 받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잔의 차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차의 자양으로 저희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윤택하여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활동하옵소서.

바른 일 보람찬 일을 위한 활력소로서 이 차를 들겠습니다.

다문화행복가족센터, 해인사 템플스테이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일 정: 2024.11.30 - 12.1 / 법보종찰 해인사 템플스테이(체험형) 1박2일.

참가자: 노인사 단장, Van Tay, 김미영, 김세라, 김연희, 김진희, 김예슬, 도연주, 민담, 박지우, 루엔티, 룬, 류영화, 리레중, 서병일, 서정환, 송월, 정이연, 조수미, 조수아, 조정숙, 종난, 윤재희, 윤지현, 원지현, 응웬티핀, 하수경, 한미란, 한유리(총 29명)

비밀의 문을 지나 염주 한 알에 마음을 담다

첫째 날, 우리 일행은 자기소개를 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김미영 씨가 특별히 준비한 행운권 게임을 즐기며, 오후 1시 20분경 해인사에 도착하였다. 하늘은 푸르고 산은 우람하고 커다란 흰 구름은 산 위에서 놀고 있었다. 마중 나오신 현사 스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템플스테이 일정과 사찰 예절을 익혔다. 담당 보살님이 강조하는 것은 시간 엄수다. 특히 공양간은 저녁 공양 오후 5시 5분까지, 아침 공양 오전 6시 5분까지 입장해야 공양할 수 있다. 우리의 지도 법사이신 현사 스님은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시다.

첫 프로그램은 사찰 안내다. 우리는 법복 위에 외투를 입고 마당에 모여 스님을 줄줄 따라간다. 숙소인 무아정사에서 대적광전이나 공양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로 갔다. 운동장은 스님들의 축구장이었으며, 울타리에는 “신심·원력·수행”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한아!” 현사 스님은 정한(초등학생)을 불러 지름길 끝에 있는 비밀 문, 빗장을 열게 하셨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야가 탁 트이고 해인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붕면이 촘촘히 이어진 전각들 너머로



매화산이 보인다. 스님은 전각 하나하나를 가리키시며 다문화가족이 알기 쉽게 설명하셨다. 멀리 지붕만 일부 보이는 큰 법당인 대적광전(大寂光殿)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이다. 비로자나불은 우주의 진리이자, 대광명을 비추는 대일여래(大日如來)로, 원어는 ‘마하바이로차나(Maha Vairocana)’다. 빛을 뜻하는 광(光) 자가 화엄 세계를 상징한다. 그 뒤쪽 높은 언덕 위에는 『고려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藏經板殿)의 건물 전체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새긴 목판이 팔만 장이 넘는다고 하여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라 부른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나? 몰라도 돼. 그냥 잘 살라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또 마음의 평화는 핸드폰”이라는 재미있는 말씀도 하신다. 첫날부터 학습량이 많았지만, 스님 말씀이 재미나서 ‘묵언’을 잊은 채 까르르 웃었던 즐거운 부처님 공부였다. 그곳에서 바라본 가야산은 중심부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마치 불타는 듯한 신비한 광경이었다.

스님들이 운영하시는 공양간은 매우 깔끔하고, 정숙한 분위기다. 우리는 묵언하며 저녁 공양을 했다. 공양 후에는 해인사 큰 법당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삼층탑을 보고 바닥에 흰 돌로 그려놓은 해인도를 걷는다. 이어서 불전사물(佛殿四物)을 관람하였다. 법고[북](法鼓)·범종(梵鐘)·목어(木魚)·운판(雲板)을 쳐서 예불 시각을 알리는 불전사물은 삼계중생이 이 소리(법음(法音))를 듣는 순간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중생제도의 뜻을 담고 있다. 노을이 지는 시간에, 범종각에서 스님들이 연주하는 사물의 음파가 신비로운 운율이 되어 세상으로 울려 퍼진다. 절간이 진동한다. 엄숙하고 장엄하다.

오후 6시 30분, 해인사 선림원에서 ‘108 염주 만들기’ 수행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추어 절을 한 번 하고, 염주 한 알씩 실에 꿴 수행을 한다. 한 박자마다 절을 하고, 재빨리 두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염주 알을 잡아 실에 꿴 행위가 쉽지 않다. 내 인생 처음으로 염주 알 꿴기에 진지하게 몰입했던 체험이었다. 감격하여 눈물 흘린 친구들도 있었다.

다문화 친구들은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며 밤을 보낸다. 잠자리는 편안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난 마음. 장경판전에서 빛을 만나다

둘째 날, 첫 프로그램은 새벽예불이다. 새벽 3시 10분, 앞마당에 모여 멀리 떨어진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단단히 옷을 껴입었지만, 밤기온이 떨어져 몸이 추웠다. 룬의 친구 종난이 옷을 얇게 입어 마음이 쓰인다. 큰 법당 가는 길, 범종각 앞에서 잠시 기다리니 스님들이 오셔서 3시 18분 45초에 북을 치신다. 산사의 겨울밤, 천둥 같은 북소리와 종소리가 춤고 적막한 가야산 기슭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사물의 울림이 모든 중생의 심금을 적시고, 제도의 의미를 새기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깊이 와닿았다. 겨울밤, 사물 연주를 본 것은 행운이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도 이 울림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카톡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아픈 마음이 다스려져 정말로 감동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루가 지나서도 사물 소리의 울림은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

3시 40분, 큰 법당 새벽예불이 사물 소리를 이어갔다. 스님 40여 분과 신도들로 가득 찬 법당은 음성 공양의 울림통이 되고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이 공명(共鳴)한다. 기쁨의 한순간이 찬란히 빛났다. 예불이 끝나자 대



부분 퇴실하고 나니 몇 분명만 남은 법당이 썰렁하고 얼음처럼 차가워져 나는 의자로 올라가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법당에서 매서운 추위를 견딘 우리는 따뜻한 아침 공양을 하며 몸을 녹였다.

일주문인 홍하문(弘河門)을 지나 장경판전 가는 길에 들려주신 ‘해인사 소금 묻기 행사’ 이야기가 흥미진진했다. 스님은 일인극을 하신다. 해인사에 불이 자주 나서 매화산(埋火山)의 불을 잡는 행사로 음력 5월 5일이면 매화산 꼭대기에 소금을 묻는다는 설화 같은 이야기. “오죽했으면 소금을 묻었겠나.” 그런데 소금을 묻고 나서 지금까지 200년간 불이 나지 않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판전 내부 순례였다. 해탈문을 들어가야 만나는 대적광전 뒤에 가파른 계단이 있다. 올라가면 바로 장경판전이다. 고려 때부터 『고려대장경』을 봉안한 이곳은, 통풍·온도·습도가 자동조절이 되는 건축 구조를 지니고 있어 더욱 놀랍다. 유네스코는 판전 건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만지지 않도록 합장한 채 생후 800세 가까운 경판들을 보기 위해 수다라장(修多羅藏)에 들어가 판전 내부를 순례한다. 목판들은 경판꽃이에 뿔뿔이 세워져 있거나 가로로 쌓여 있다. 자세히 보니, 양쪽에 약간 도톰한 손잡이가 있어 판각이 서로 맞붙지 않고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혜롭다. 황공하게도, 판전 담당 스님께서 판각을 꺼내어 보여주셨다. 실물로 보니 신기하다.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글씨의 새김질이 정교하고 일정하다. 글자체가 충직하고 아름답다.

사무실 건물로 돌아와 경관을 인쇄하는 인경(印經)을 체험하고, 마당으로 나가 스님과 담담 보살님, 그리고 우리 일행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다문화 친구들은 스님과 헤어지기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께서도 아쉬움이 남으신 듯 “내 카메라로 찍어줘요, 여러분 이름을 외우게.” 라고 하신다.

이번 해인사 템플스테이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고, 전통문화를 배우며 자신의 참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추운 날씨와 빠듯한 일정에도 몸이 가볍고 즐거웠던 것은 현사 스님의 지혜롭고 유쾌한 진행의 힘 덕분이다. 돌아오는 길,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남는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맡으신 소임을 다 하시는 스님들의 수행에 깊이 감사드린다. 함께한 참가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운영위원회, 정기 이사회, 정기 총회

2025년 1월 16일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의 첫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운영위원회 시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합의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2024년 사업 및 결산 심의, 2025년 신임 임원 선출, 연간 사업계획 및 기타 안건 제19차 샤카디타대회(말레이시아 개최) 건이 논의되었다. 12시에 경복궁역 근처 H라운지에서 점심 공양(정대련 원장 보시)이 있었다.



2월 13일에는 오전 11시 (사)지혜로운여성 정기 이사회 및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정오에는 (사)지혜로운여성 및 불교여성개발원 이사가 함께 만나 점심 공양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2월 22일에는 정기 총회가 열려(총원 336명 중 참석 41명 위임 129명으로 성원 성립),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다.



○ 정대련 원장과 조은수 감사, 금륜사 개금 점안식 참석

정대련 원장과 조은수 감사는 1월 12일 금륜사 삼존불 개금 점안식에 참가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오색실로 장엄한 금륜사 신축 법당에서 본각스님의 법당 신축 및 삼존불 조성 과정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희찬탄하며, 금륜사의 번창을 발원하였다.



을 이룬 주원 군을 칭찬하고, 입학 후 성실하게 대학에 다녀서 자동차 디자이너의 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였다.



○ 고봉중고등학교 특별장학금 전달식

1월 17일 정대련 원장, 남동현 부원장, 양형정 교정교화센터장이 고봉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올해 대학에 합격한 주원 학생의 장학증서 수여식(장학금 160만원)에 참석하였다. 수여식 후 일행은 고봉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 그리고 주원 학생과 함께 차담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학 진학 꿈

○ 명경단청 특별관람

1월 21일 정대련 원장, 정경연 고문, 김선옥 고문, 임부희(2차 108인), 원유자 이사, 김순철 이사, 조정숙 회원, 송문희 회원 등은 성과 중정예하와 함께 경기도 박물관 특별전시전 “명경단청전”을 관람하였다.

점심 공양 후 성과 중정예하와 헤어지기까지 불교여성개발원을 한 번 더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일행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관장실(송문

회 6차 108인)에서 도반들의 차담 시간을 가졌다.



○ 불교여성개발원 천일기도(금강경 700일) 회향 및 입재

2025년 2월 4일, 28명의 금강경 독송 기도 동참자들은 지리산 선림사에서 천일기도를 회향하였다. 11시에 선림사에 도착하여 사시에불에 이어 원만 회주스님, 무등스님, 보우법사님이 주재한 불교여성개발원 천일기도 회향 천도제에 참가하였다. 위즈덤합창단이 찬불가로 화성공양을 올려 천도제를 더욱 경건하게 하였다.



선림사의 현지 재료로 정갈하게 차린 점심 공양을 마친 후, 김선옥 고문의 제안으로 보우법사님과 함께 회원들이 서로 감사의 삼배를 나누었다. 따뜻한 취침방을 준비해 주신 보우법사님과 선림사 보살님들에게 감사하며 1박하고, 2월 5일 새벽기도를 기점으로 2차 천일기도를 시작하며 금강경 독송 기도를 이어갔다.

보우법사님은 선림사 경내 무환자나무 열매로 만든 합장주를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주며, 기도를 이어가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 무량감로회 의료봉사현장과 행복가족센터 법회 참석

2월 9일 오전 9시 정대련 원장은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실시한 무량감로회 의료봉사에 참석하여 이순재 회장(개발원 부원장, 8차 108인), 강영자 총무(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 6차 108인)와 박귀원 교수(8차 108인), 한채화(9차 108인), 함양자, 김순자(11차 108인) 등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무량감로회에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남동현 부원장(6차 108인)은 매월 의료봉사일에 참석하여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정대련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열린 다문화행복가족센터 2월 법회에 참석하여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형양자 감사가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마하실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2024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 18일 오후 3시에는 조은수 감사의 업무감사가 진행되었다.



○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선정

2025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시니어 지혜+AI상상:그림책으로 만나다>사업이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3천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AI그림책만들기'를 주제로 시니어 참여자를 위한 AI활용교육과 그림책 제작, 출판기념회(또는 북콘서트) 개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로부터 2025년 한부모가족조모임(좋은벗, 리더 사기순) 지원금과 다문화한부모가족조모임(다문화행복가족센터, 리더 노인자) 지원금을 받았다.

○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관람

2월 28일 정대련 원장과 김여주 부원장, 노인자 부원장, 사기순, 조명숙 회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시사회에 참석하였다. 정대련 원장은 금일봉과 함께 불교여성개발원 축하 난 화분을 전달하였다.



○ 강원지원

지원장 김옥주와 강원지원 회원은 1월 13일 신년 정기법회를 개최하였다. 2월에는 복지관 배식봉사를 하였고, 정월보름날에는 김무성 고문과 회원들이 모여 보름맞이 웃놀이를 개최하였다.



○ 대구·경북 지역 모임

2월 11일 이정숙 회장(11차 108인) 댁에 모여 보름맞이 웃놀이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회원들의 단합 시간을 가졌다.



○ 2025 108인 워크숍

3월 22일 여성 불자108인회가 주관한 워크숍이 경기 설악면 청리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108인회 및 기타 참석자 105명이 함께하여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08인회의 단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정대련 원장과 이영주 108인회 회장의 인사말과 환영사로 시작한 워크숍은 재가여성 불자의 모범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의 회원들이 교육·수행·봉사의 키워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여성 불자로 거듭나는 다짐의 시간이었다. 또한 회원 중 18명이 370만 원의 후원금을, 4명은 계란, 떡, 음료 등 다과를 후원해 주었고, 17명이 행운권 경품에 물품을 보시하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 여성 불자108인회

2025년 1월 8일 신년맞이 초청 특강과 제7회 여성 불자108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초청 특강자인 영남대 의대 명예교수 김성규 박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게 먼저고, 알게 되면 불교를 믿게 된다’는 확신으로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을 편찬한 이 시대 재가 선지식인이다. 김 박사는 “AI시대의 불교:여성불자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광을 펼쳤다.



여성 불자 108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8대 남동현 회장의 아름다운 회향과 제9대 이영주 신임 회장의 열정 가득한 출범식이 이어졌다. 또한 제8대 108인회에서 수고한 집행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불교여성개발원의 신임 부원장과 제9대 108인회 차수장 10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기념식에는 멀리 강원지원과 대구 예비모임 회원도 다수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인숙 고문은 자신의 작품인 주얼리 60점을 이·취임하는 임원에게 선물로 증정하였다. 또한 이인자 고문의 굴, 수익사업단의 김



밥, 남동현 회장의 된장국, 이순이 회원의 떡, 오현숙 회원의 구운 계란 등의 후원이 있었다. 전국비구니회 광용 회장스님의 난 화분과 류지영 회원의 축하 화환 등 여러 회원의 축하선물로 지혜실 행사장이 풍성해졌다.

○ 여성 불자108인회 임원 회의

2월 6일 지혜실에서 여성 불자108인회의 첫 임원 회의가 열렸다. 3월부터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연간 일정 및 108인회 주관 워크숍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점심 공양(이영주 회장 보시)시간을 가졌다.

3월 6일 첫 임원 회의에서는 회의 장소를 세팅하고 마무리하는 “봉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원들이 함께 점심 공양(정진희 1-3차 차수장 보시)을 하였다.



○ 5차 108인회 신년회

2월 22일 5차 108인회(차수장 김지영)는 불교여성개발원 정기 총회 전, 5차의 신년회 겸 차수 모임을 가지며 새해 건강을 기원하고 한 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였다. 식사와 차(강미중 회원),

모자(김옥희 회원), 식혜·호두·호룽지(노인자 회원), 치즈(김선숙 회원) 등을 서로 보시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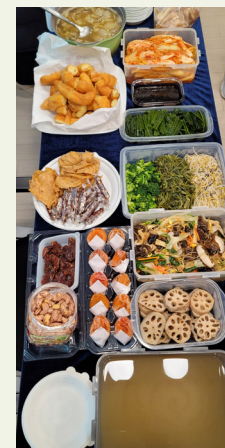
○ 가족지원센터

2월 4일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은자)는 임원회의를 열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논의하고, 부부템플스테이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3월 4일에는 종로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박지선 센터장을 만나 사업방향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1월 12일 다문화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는 신년 법회에서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곧바로 ‘몸 바라보기 명상’을 짧게 시작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월 9일 법회에서는 몸 바라보기 명상과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인자 센터장이 준비한 나물, 국, 식혜와 행복가족센터 회원이 챙겨 온 디저트(차, 사과, 꽃감, 도너츠 등), 김미영 회원 베트남 어머니가 만든 바나나 간식을 나누는 달콤한 시간을 가졌다.



3월 9일 법회에서는 ‘몸 바라보기 명상’을 시작으로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을 함께 읽고, ‘어린 시절의

나 또는 자유 주제로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노인자 센터장의 반찬, 국, 식혜, 윤자현 회원의 구운 계란,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장의 과일로 점심 공양을 하였다.



○ 명상리더십센터

3월 10일에 백경임 교수님을 모시고 “부처님 상담법, 활용 및 실습 심화과정” 총 10회 강의 중 제1강을 개강하였다. 수강생은 20명이며, 김영희 센터장은 맛있는 차로 개강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 불교여성연구소

김선숙 소장은 신임 연구위원 계미향, 양영순, 이은영을 위촉하였다. 자문위원으로 김진 전 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2025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다.

○ 생명존중운동본부

강영자 본부장(6차 108인)은 2월 신규 상담사를 모집하였다. 함양자, 김상하 두 봉사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교육을 받고 상담사가 되었다.

○ 지혜아카데미

지혜아카데미 이영미 대표는 2023-24년에 걸쳐 새활용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인정받아, 2025년에는 서울시 종로구 문화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새활용으로 만든 옷으로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지혜아카데미 강좌는 매월 4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지혜실에서 열리며, 강의계획서는 다음 표와 같다. 수강료는 10만 원(회당 1만 원)이다. 담당: 문운정 연구교육팀장(02-722-2101)

2025 지혜아카데미 강의 계획서

*매월 4주 목요일 오후 2시 / 지혜실

번호	날짜	초청강사	차수	강의 제목
1	3월 27일	남혜경	11	내 생애 최고의 해, 2025
2	4월 24일	조은수	2	통합된 힘, 새로운 갈: 샤카디타와 재가 여성의 리더십
3	5월 22일	성민선	3	불교와 보시, 자선과 사회복지
4	6월 26일	정진원	7	여행 글쓰기
5	7월 중	-	-	자연, 환경, 지구의 미래 관련 강의
6	8월 28일	전영숙	8	이웃에서 배우다-중화권 불교계의 단합과 21세기 중국불교의 부흥-
7	9월 25일	김진	2	부처님 가르침의 생물학적 접근
8	10월 23일	하수경	1	미술탐방
9	11월 27일	박정희	6	경전 속의 부처님 32상 80종호
10	12월 19일	김점란	6	선명상 댄스



○ 위즈덤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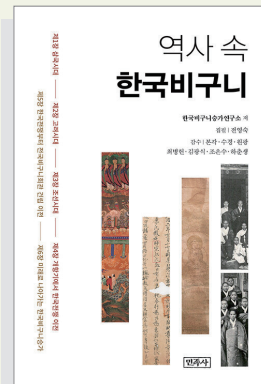
2023-2024년 위즈덤합창단의 황경자 단장에 이어 송은주 회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즈덤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합창 연습을 하며, 올해는 오카리나 연주 연습도 함께 진행한다. 정대련 원장은 2월 위즈덤합창단 연습시간에 방문하여 금일봉을 전달하며 응원하였다.



○ 날란다독서모임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전영숙)은 열두 번째로 읽을 책으로 『역사 속 한국 비구니』를 선정하였다. 3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 1회, 목요일 저녁 8시에 한 명씩 순서를 정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고 있다.

『역사 속 한국 비구니』는 전영숙 반장이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집필한 책이다.



○ 수익사업단

1월 11일 최혜경 수익사업단장(2차 108인), 남동현 부원장, 권은랑 회원이 19가지의 천연재료와 맛이 든 재래간장을 기본으로 하여, 소금과 설탕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500ml의 맛간장 55병을 만들어 판매하여 개발원의 수익을 올렸다.



○ 고등동복지회관

1월 24일 고등동복지회관(관장 김희정)에서는 고등동 복지관어린이집 원아들이 한복을 입고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린 후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잡채와 나물 등으로 이루어진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설 절기 행사 “과일 나눔”과 대체식을 선물로 드렸다.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024년 말까지 구립 방학가람 어린이집을 새단장해 주어 올해부터는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코로나 이후 5년만에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 부모님과 함께한 무대도 있었고 아이들이 한뼘 성장한 모습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뿌듯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 우바이예찬

발행인 정대련 원장은 2025년 92호 봄호를 기하여 새로운 편집위원들을 위촉하고 편집간사 2인을 보완하여 우바이예찬 발간에 독립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지난 6년 동안 우바이예찬 편집장으로서 애써주신 형난옥(6차 108인, 출판사 나눅 대표)님께 큰 감사의 마음 전하며, 사무국 소식을 비롯하여 함께 편집 일을 도운 조정숙 사무국장께도 감사를 전했다.

○강영자 회원(6차 108인)

1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 108인회 주관 2025년 바자를 위해 셔츠 신상품 12박스를 기증하였다.



○김경옥 회원(11차 108인)

수원문인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2025년 제16회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인숙 고문(1차 108인)

2월 20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장·애장품 160여 점을 개발원에 기증하여 108인회 바자에 도움을 주었다.



○사기순 회원(4차 108인)

1일 29일 법보신문 법보시론에 “삿된 견해·왜곡된 신념이 불행 불러온다”로 기고하였다.



○우인순 회원(8차 108인)

1월 24일 천원식당에 과자와 과일을 보시하였다. 또 설날 선물로 한부모어린이 480개, 안양소년원 210개, 파주 군부대 120개, 양주 군부대 120개, 고봉중고등학교에 200개의 커스터드 빵을 선물하였다.



○전영숙 회원(8차 108인)

12월 19일 전영숙 회원의 저서 『역사 속 한국 비구니』의 출간기념회가 전국비구니회와 한국비구니연구소의 주최로 한국역사문화박물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2월 16일 제천지회(회장 김연호)에서 개최한 정기법회 <우리는 선우>에서 “21세기 중국불교의 중흥”에 대해 특강을 하며, 중국불교를 이끄는 재가 리더들에 대해 설명했다.



○임순덕 회원(5차 108인)

제 29회 문학쇼 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에서 ‘고령화 시대의 이웃’과 ‘인생의 답’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임순덕 회원은 3월 22일 108인 워크숍 행사에 행운상으로 수상작이 실린 저서 5권을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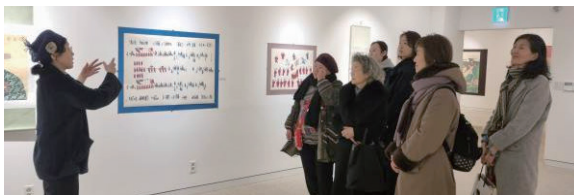
○피상순 회원(3차 108인)

3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 이화대의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동창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황치석 회원(10차 108인)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종사(宗社) 숭조(崇祖)—궁중기록화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전시하였다. 12일 오프닝에 정대련 원장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10.1~2025.03.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김경란(10차)	1,000,000	이기항(1차)	1,000,000	김영미(6차)	60,000	황명자(6차)	60,000
고은자	1,200,000	김귀순(7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김옥주(7차)	60,000	황선화(5차)	60,000
김선숙	1,200,000	김미연(10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김윤숙(11차)	60,000	황수남(9차)	60,000
김순철	1,700,000	김미연(9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김청옥(7차)	60,000	황치석(10차)	60,000
김양희	300,000	김복순(2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남동현(6차)	6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김여주	3,000,000	김선옥(6차)	1,000,000	이영주(7차)	40,000	남동화(3차)	60,000	강부자(1차)	100,000
남동현	2,000,000	김숙자(3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노희순(3차)	30,000	고외숙(7차)	100,000
남혜경	200,000	김순남(10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문보경(6차)	60,000	공명희(11차)	120,000
박원자	600,000	김승목(3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박경현(11차)	60,000	박귀원(8차)	60,000
박정하	200,000	김양식(1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박귀원(8차)	60,000	박정희(6차)	60,000
손재현	1,200,000	김영순(3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박정희(6차)	60,000	권선(9차)	120,000
양정희	1,200,000	김옥숙(10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박해옥(11차)	60,000	김광숙(4차)	200,000
원유자	500,000	김외숙(2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변순자(6차)	60,000	김남선(2차)	100,000
윤정로	3,000,000	김용란(11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백경이(8차)	40,000	김도연(7차)	100,000
이영순	600,000	김용숙(7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서은숙(6차)	60,000	김명옥(11차)	120,000
이순재	3,000,000	김윤옥(7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서혜선(11차)	40,000	김상리(9차)	100,000
이윤희	600,000	김은희(4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손유림(11차)	60,000	김용림(1차)	100,000
이정숙	1,200,000	김일명(7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손인애(9차)	60,000	김정희(9차)	100,000
이해남	3,000,000	김주현(8차)	1,000,000	이현주(7차)	1,000,000	송종옥(9차)	60,000	김정인(9차)	100,000
임순덕	3,000,000	김지영(5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송주의(9차)	60,000	박종명(9차)	100,000
전영숙	1,2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송혜진(8차)	60,000	배명자(11차)	100,000
정대련	4,000,000	김현지(7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신숨이(11차)	60,000	백남열(11차)	120,000
정진희	1,200,000	김형인(9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신재영(6차)	60,000	서예석(11차)	120,000
정철재	1,200,000	남상민(1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안인자(9차)	60,000	서유림(5차)	100,000
정형은	3,000,000	남혜경(11차)	1,000,000	정인향(11차)	500,000	양경윤(5차)	60,000	신경숙(9차)	100,000
최혜경	600,000	류인숙(5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오지연(4차)	60,000	신용현(9차)	100,000
황순연	1,200,000	리영자(1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유진희(6차)	60,000	심미경(9차)	100,000
황외숙	900,000	문명하(5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유화영(11차)	40,000	오기남(10차)	10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박갑자(6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윤영희(11차)	40,000	유경희(4차)	100,000
구윤임	100,000	박강자(6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윤정선(6차)	60,000	윤혜경(10차)	100,000
김선숙	1,200,000	박경자(5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윤효영(8차)	60,000	이은영(1차)	100,000
김영희	600,000	박근연(1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이기항(1차)	150,000	이인자(2차)	100,000
김외숙	1,200,000	박명혜(2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이시구(11차)	180,000	이재화(11차)	100,000
김용란	1,200,000	박정애(8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이정숙(11차)	100,000
김점란	1,200,000	박종균(6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이예숙(11차)	60,000	이지희(11차)	120,000
김진	1,200,000	박찬재(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이은경(11차)	60,000	이해남(11차)	100,000
김인자	1,200,000	백경임(1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이중용(조명숙)	60,000	임나경(11차)	120,000
송은주	1,200,000	백미현(10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이진형(11차)	60,000	정현주(11차)	120,000
안기순	760,000	사기순(4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이해숙(9차)	60,000	조재란(10차)	100,000
안수연	900,000	서현숙(7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임정애(6차)	60,000	채대봉(9차)	100,000
박종덕	1,200,000	서혜경(1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전영숙(8차)	60,000	최수영(11차)	120,000
서혜선	200,000	성민선(3차)	1,000,000	홍정은(3차)	1,000,000	정은희(6차)	60,000	최순희(11차)	100,000
양경윤	1,200,000	성영란(10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정지원(7차)	60,000	최해숙(4차)	100,000
양현정	600,000	손미영(7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정혜정(9차)	60,000	하수경(1차)	100,000
이영주	1,200,000	손미원(9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조경숙(6차)	20,000	홍경희(2차)	60,000
이영희	100,000	손인희(9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조귀자(9차)	60,000	홍소진(10차)	100,000
이정호	1,200,000	송현주(4차)	1,000,000	강명희(6차)	120,000	조민기(11차)	60,000	홍의경(11차)	120,000
이호옥	1,200,000	신용현(9차)	1,000,000	강순주(11차)	60,000	조은수(2차)	60,000	황수경(3차)	100,000
이화선	1,200,000	안수연(11차)	1,000,000	강옥란(7차)	60,000	조정숙(6차)	60,000	황은복(11차)	120,000
정대련	3,000,000	안영(10차)	1,000,000	강옥희(7차)	60,000	조현숙(10차)	60,000	회원회비	
조은경	1,200,000	안애원(7차)	1,000,000	강희경(10차)	60,000	주찬옥(6차)	60,000	강희출	30,000
조재란	1,200,000	양숙자(5차)	1,000,000	계미향(8차)	60,000	채진영(11차)	60,000	권은량	60,000
조희금	1,200,000	양정희(9차)	1,000,000	고은자(10차)	40,000	최민희(8차)	60,000	김어석	20,000
황경자	1,200,000	양채희(7차)	1,000,000	구윤임(11차)	40,000	최은희(9차)	60,000	김연희	6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어순아(9차)	1,000,000	권영순(11차)	60,000	최희영(7차)	60,000	김영희	60,000
강미중(5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김선연(9차)	30,000	한주영(10차)	60,000	김정희	60,000
강설미(7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우인순(8차)	60,000	한채화(9차)	60,000	김학엽	30,000
고은자(10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김순자(11차)	60,000	한혜원(7차)	40,000	김현숙	60,000
권지혜(7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김양희(6차)	50,000	함양자(11차)	60,000	나경윤	30,000
		이계경(4차)	1,000,000	김연(11차)	60,000	황남채(1차)	60,000	노지숙	6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10.1~2025.03.31)

도인희	60,000	류인숙	60,000	신병옥(신제정미소)	1,000,000	신지울	200,000	이인자	200,000
민선정	60,000	손미영	720,000	신수영(정진희 권선)	140,000	신현옥	270,000	이정숙	50,000
박말희	30,000	송옥순	18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어순아	180,000	임부희	100,000
박문숙	60,000	신수영	6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510,000	윤인숙	180,000	정경연	700,000
박복순	30,000	유옥준	180,000	이사구(11차)	1,080,000	이희숙	270,000	정대련	1,956,000
박영재	60,000	이기향	30,000	이기향(1차)	1,050,000	장미숙	180,000	정진희	100,000
박지선	60,000	임주연	180,000	이영주(7차)	4,680,000	정대련	200,000	정철재	200,000
박홍우	60,000			이영희(8차)	580,000	황경자	180,000	정혜스님	100,000
박희상	2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이인자(2차)	1,600,000	황은복	180,000	조영숙	100,000
서혜정	60,000	구윤임(11차)	90,000	임주연(정진희 권선)	54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최혜경	100,000
선문스님	60,000	김경란(양경윤 지인)	10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780,000	강민경	10,000	보시함(무명)	115,000
송만순	120,000	김선옥(6차)	180,000	최윤옥(7차, 최혜경 권선)	990,000	권기란	20,000	7차회원	210,000
안미경	60,000	김외숙	1,080,000	최경경(이영미 권선)	1,080,000	권혜영	30,000	금강경 회향보시금/특별장학금	
안석자	60,000	김정희(9차)	300,000	형난옥(6차)	7,080,000	김미영	40,000	강영자 외 지인	700,000
연명순	60,000	김종숙	60,000	황규점(정진희 권선)	210,000	김민경	10,000	권순희	100,000
왕민영	60,000	남동현(6차)	9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김연성	30,000	권승호	100,000
원유자	60,000	민경란(9차)	1,080,000	(다문화봉사단/ 교정교회센터/		김은주	5,000	김선옥	450,000
유명숙	60,000	변영숙(김여주)	1,080,000	우바이예찬/ 재소자영치금/ 기타)		김지현	20,000	김여주	100,000
윤용옥	30,000	사기순(4차)	1,000,000	강미중	50,000	김혜미	20,000	김연수	200,000
이강희	30,000	송재영	1,000,000	강부자	1,000,000	김향조	10,000	김재란	300,000
이고은	40,000	양경윤(5차)	1,800,000	간양의료재단	1,000,000	김희정	400,000	김현미	30,000
이미선	180,000	양정희(백문일, 백지민)	2,160,000	고부진	500,000	박소현	20,000	김해령	100,000
이숙자	60,000	유병철	100,000	김옥숙	120,000	박영숙	30,000	남동현	350,000
이승자	60,000	이명순(2차)	1,000,000	김외숙	100,000	오혜진	20,000	노숙령	300,000
이영재	60,000	이아영(송은주 장녀)	1,080,000	남동현	140,000	유연서	10,000	노인자	100,000
이윤구	60,000	이영희(8차)	200,000	노숙령	100,000	유영미	10,000	박종덕	100,000
이윤희	60,000	이인자(2차)	1,800,000	노인자	200,000	윤정은	10,000	박원자	300,000
이재명(정원일)	60,000	이정호(2차)	500,000	서우림	40,000	이경미	10,000	박혜옥	200,000
이재영	60,000	이지윤(정대련 권선)	1,080,000	서현숙	500,000	이영란	20,000	백경임	300,000
이정호	60,000	이효원(송은주 차녀)	1,080,000	양정희	250,000	이지은	60,000	보우법사	700,000
이종열	60,000	이희숙(8차)	1,080,000	오해진	10,000	전주옥	20,000	성기숙	100,000
이해남	60,000	일지스님(박현자)	500,000	유한나	160,000	정별	10,000	성영란	100,000
이화선	60,000	임부희(2차)	100,000	윤재희	100,000	정혜자	10,000	송은주	500,000
임무순	120,000	정대련(6차)	100,560,000	윤지현	100,000	최다혜	10,000	안기순	100,000
임주연	60,000	조명숙	1,000,000	이기향	982,900	한경숙	20,000	양정희	300,000
자우스님	60,000	진정순(3차)	1,080,000	이란	100,000	한정미	100,000	양한정	200,000
장길수	20,000	최연지(정대련 권선)	1,080,000	이영미	100,000	황화성	150,000	어순아	100,000
장영선	60,000	최윤옥(7차)	90,000	이영주	100,000	창립24주년 기념 & 워크숍		원유자	650,000
전미옥	60,000	한우진(노숙령자)	1,200,000	이영희	100,000	강미중	200,000	윤정로	100,000
정명모	60,000	황규점(정진희 권선)	180,000	이인자	100,000	강원지원	300,000	이기향	750,000
정숙인	180,000	황순연(7차)	1,080,000	이정호	100,000	고은자	100,000	이순재	100,000
정주현	60,000	황은복(11차)	1,080,000	이형훈	200,000	김선옥	400,000	이영주	100,000
정희자	60,000	11차 108인	370,000	임순옥	100,000	김애주	500,000	이윤희	300,000
조귀자	6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정대련	1,064,000	김여주	300,000	이정호	300,000
조문경	20,000	(불교르네상스의꿈2) 약정 잔액		조은수	100,000	김여주	300,000	이희숙	100,000
조여경	60,000	강순주(원유자 권선)	1,080,000	조정숙	100,000	김연수	100,000	장형순	200,000
조우상	60,000	구윤임(11차)	990,000	최혜경	100,000	김외숙	500,000	전영숙	100,000
조정숙	100,000	권수형(4차)	360,000	하수경	100,000	김인숙	500,000	정대련	700,000
진승연	60,000	김선옥(6차)	900,000	한유리	50,000	김형인	100,000	정재선	200,000
진여스님	180,000	김연수(5차)	80,000	형난옥	200,000	남동현	300,000	정철재	130,000
진여스님	60,000	김용숙(7차)	1,080,000	황경자	50,000	노숙령	1,000,000	조정숙	200,000
차원준	60,000	김인숙 고문	60,315,750	황수경	540,000	리영자	500,000	최수영	30,000
최순진	60,000	김정희(9차)	150,000	황수남	120,000	박종덕	100,000	최혜경	100,000
하양자	60,000	김종숙	13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백경임	100,000	피상순	1,000,000
한승우	6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350,000	권승오	270,000	성불연대	200,000	하수경	200,000
허난영	60,000	남동현(6차)	990,000	김경란	120,000	불광법회	1,000,000	한수영	200,000
허영숙	60,000	류인숙(5차)	240,000	김선옥	300,000	양정희	300,000	형난옥	400,000
형난옥	60,000	박순(1차)	9,000,000	김재란	180,000	양하영	100,000	황경자	200,000
홍점례	30,000	배영숙(김여주자)	1,080,000	김여주	180,000	원유자	100,000	황수경	300,000
황유진	60,000	손미영(7차)	1,812,000	김옥숙	100,000	이기향	1,000,000	황수남	250,000
배수아	500,000	손미원(9차)	80,000	남동현	100,000	이병두	200,000	황은복	400,000
		송옥순(정진희 권선)	450,000	송은주	320,000	이윤희	45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강인영	70,000								
김형숙	180,000								